등록금·생활비 걱정에 "돈 되면 뭐든지…"

대학생 막장·탈선 알바 성행

유흥주점 도우미에 호객 '삐끼'까지

비싼 등록금과 치솟는 생활비 탓에 언제부터인가 '돈만 되면 뭐든 하는' 대학생들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면 뭐니해도 학생 분위기에 어울린 '과외'가 최고였고, 혹독한 사회 체험을 위한 막노동도 선호대상이었다. 이외 학원이나 게임방, 마트, 제과점 등에서 시급을 받고 일하는 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매년 등록금이 올라 학업을 잇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데다 생활비 감당도 버거워지자, 학생 신분에 어울리지 않음은 물론 탈선을 넘어 탈법을 하는 '막장'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

전남지역 A대학 4년 K(25)씨는 지난 6월 30일부터 광주시 북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웨이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2학기 등록금 300만원을 벌기 위해서다. 그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12시간씩 일해 받기로 한 월급은 불과 80만원. 월급만으론 등록금에 턱없이 모자라지만 누나나 이모 같은 손님들에게 받는 팁은 매일 쏠쏠해 한 달이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등록금 충당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노동판에서 먼지를 뒤집고 쓰고 힘들게 일해봤자 몇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창피하더라도 유흥업소 주변을 기웃거리는 대학생들이 많은 실정이다.

광주지역 B대학 2년 L(22)씨는 지난달 3일부터 광주시 동구의 한 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L씨가 하는 일은 룸 손님들의 부탁을 받고 여성 도우미를 불러주는 것이다. 카페에서 접대부를 부르는 것은 엄연히 불법이고, L씨도 이 알바가 불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월급은 80만원이지만, 남성 손님과 여성 도우미들이 챙겨주는 팁이 한 주에 100만~120만원이나 된다. 부모님에게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속인 상태다. 부끄럽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알지만 한 달 일해서 300만~400만원을 거뜬히 벌 수 있는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이 유흥업소 주변에서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와 용봉지구 일부 주점에서 접대부나 도우미 일을 하는 여학생들도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사고나 상해 위험,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속칭 '지옥의 알바'를 하는 학생들도 많다.

전남지역 C대학 3년 B(24)씨는 지난 6월 말 광주의 한 프레스 공장에서 일했다. 힘들기는 하지만 급여가 150만원이어서 두달간 일해 학비를 벌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는 일한 지 일주일 만에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학비를 벌려고 시작한 일이 평생 장애를 안겨줬다며 실의에 빠져 있다.

이 밖에 일부 학생들은 숙달되지 않으면 위험하기 짝이 없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나 택시 운전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만남의 장소'는 어르신들 놀이터

광주지역 낮 최고 기온이 33.4도를 기록한 2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철 4가역 '만남의 장소'에서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바둑·장기를 두면서 땀을 식히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은행원 황당한 환전 실수

550만원 환전요청에 10배 5400만원 지급

광주의 한 은행에서 직원의 실수로 고객이 건넨 돈 보다 10배에 가까운 금액을 홍콩 달러로 환전해 준 사건이 발생했다.

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진월동 소재 모 은행은 '직원의 환전 실수로 고객이 준 돈보다 10배 가량 많은 금액이 전달됐으니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최근 접수했다.

은행 측은 진정에서 "지난달 26일 오전 11시께 직원 A(여·45)씨가 고객 B씨로부터 '홍콩달러로 환전해달라'는 말과 함께 현금 550만원을 받았다. 1000달러 지폐 43장을 줘야하는 데 403장을 지급하는 실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B씨에게 실수로 준 40만3000홍콩달러는 원화로 바꿀 경우 5435만원에 해당하는 금액. 10배 가까이 되는 금액을 잘못 준 은행 측은 당일 업무마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 B씨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홍콩으로 출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은행의 실수인 것은 맞지만 만약 B씨가 은행의 실수를 알고도 돈을 가져갔다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유아용품 싸게 팔아요" 사이트 주의

인터넷 글올려 1천만원 꿀꺽 북부경찰, 20대 여성 검거

광주에 사는 주부 김모(23)씨는 지난 5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에 유아용 장난감·서적 등 유아용품을 싸게 팔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을 접한 이모(29)씨 등 피해 주부들은 거래사이트에 적힌 연락처를 보고 연락을 했다. 김씨는 피해자들과 통화를 하면서 세 살 배기 아이의 울음소리를 일부러 들려줬다.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피해자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물품을 배송받기 전에 적게는 5만원, 많게는 20만원의 현금을 김씨에게 계좌이체 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씨 등 피해자 103명으로부터 일주일 간 약 1218만원을 송금받은 뒤 종적을 감췄다.

김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광주 북부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아이 분유 값과 생활비를 벌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일 김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나우찬

〈8371〉 김종두

여성 운전자 76.5% "운전중 휴대전화 통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여성 운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불감증을 반영했다.

2일 한국소비자원이 자동차공업협회와 공동으로 여성운전자 5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76.5%)나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40.1%) 등 주의가 산만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을 느꼈다고 답한 운전자도 전체의 39.3%에 달했다.

안전의식이 부족한 여성운전자들도 상당수였다. 응답자의 43.7%는 비상 삼각대의 사용방법을 모르고 있었고, 유아를 동반한 여성운전자의 38.7%는 유아 보호장구를 착용시키지 않았다. /연합뉴스

"차량 도난 당했다" 건망증 오인신고

쌍나팔

○…'주차해 둔 차량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30대 회사원으로부터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으나 '건망증'으로 인한 오인신고였던 것으로 판명.

○…2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임모(38)씨로부터 "지난 7월 16일 오후 7시께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병원 주차장에 세워둔 소나타 승용차와 차량에 실려있던 골프채 등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신고가 최근 접수, 수사를 벌였으나 지난 1일 임씨에게 한 주차장에서 "왜 주차해 둔 차량을 가져가지 않느냐"는 연락이 와 수사가 종결됐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병원 주변의 사설 주차장에 차량을 세운 임씨는 이날 저녁식사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한 후, 다음날 병원내 주차장에 차를 둔 것으로 착각해 도난 신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등산로·아파트 텃밭서 잇단 불발탄

광주·전남 올들어 12개 발견… 집중호우 여름에만 9개

최근 집중호우로 광주·전남지역 도심에서 6·25 전쟁 당시 불발탄과 유기탄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어 시·도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2일 제31사단에 따르면 올들어 이날 현재 광주·전남지역 등산로와 텃밭·공사현장에서 12개의 불발탄과 유기탄이 발견돼 군부대 폭발물처리반에서 처리했다. 특히 이중 9개는 비가 집중된 여름철에 발견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6건의 불발탄이 발견됐었다.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광주시 광산구 평동산단 조성 공사현장에서 불발탄 3발이 잇따라 발견된데 이어, 지난 26일에는 서구 염주동 짚봉산 등산로에서 수류탄 1발이 발견됐다. 이에 앞서 6월 14일에는 광양시 광양읍 A아파트 텃밭에서 백린연막수류탄 1발이 발견됐다.

이번에 발견된 불발탄 등은 한국전쟁 당시 사용됐던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들 불발탄과 유기탄의 경우 폭발 가능성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31사단 측은 최근 쏟아진 집중호우로 토사를 흘러내리면서 오랜 시간 땅속 깊이 묻혀 있던 불발탄과 유기탄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등산객과 주민들은 언제 불발탄이 터질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다. 무엇보다 별다른 안전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31사단 관계자는 "불발탄 발견 땐 이를 만지거나 다른 장소로 옮겨서는 안 된다. 불발탄을 발견하면 현장을 그대로 보존한 상황에서 가까운 군부대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50대 男 의문 폭행 당해

50대 남성이 누군가로부터 심하게 폭행을 당한 뒤 하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35분 광주시 서구 광천동 광주천에 주모(51)씨가 누군가로부터 온몸을 두들겨 맞은 뒤 물에 빠진 것을 인근을 지나던 시민이 발견,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머리를 비롯한 몸 구석구석을 다친 주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원에 의해 광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또 당시 주씨는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여서 피해 진술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임건우 전 보해 회장 사전 구속영장 청구

저축銀 유상증자 과정 보해양조 420억 손해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일 불법대출 등을 통해 보해저축은행 부실을 키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배임 등)로 이 은행 대주주인 보해양조의 임건우(64) 전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끌어들여 보해양조에 4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양조의 자금 80억원을 자녀 주택의 전세비와 생활비 등으로 쓰고 창업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수십만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세 1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범행 사실을 상당 부분을 시인하면서도 "은행 부실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 은행 경영은 오문철(구속기소) 보해저축은행장에게 맡겼고, (불법행위를)지시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회장은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분식회계를 통해 이를 감추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7·9급 공무원 시험 [국가직 지방직]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 9급 종합반 | 법원서기보 | 호남유일 소방직(전문) | 명품 "강력단과" | 7·9급 검찰직 | 9급 야간반 | 농업직/기술직
호남유일의 합격전문반 개설
일반직 전환특채 주말반
7월 23일 첫진도 개강!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7천명 대폭증원
사회복지직 특별반 모집 개강 9월 1일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
직영학원 김영편입학원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